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잠재계층과 관련요인 분석*

황혜영** · 이안나*** · 한유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처행동을 바탕으로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잠재계층별 유형과 관련된 개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 1,227명이었다. 자료 분석에는 잠재계층분석과 Mplus의 R3STEP 절차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처행동에 따라 다섯 개의 잠재계층이 확인되었으며, ‘차단/회피형’, ‘복합적 도움 요청형’, ‘무대응형’, ‘직접 요구형’, ‘보복/신고형’이었다. 둘째,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는 무대응형에 비해 차단/회피형, 복합적 도움요청형, 직접 요구형에 속할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무대응형에 비해 복합적 도움요청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보복/신고형에 속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처행동이 서로 구별되는 잠재계층으로 유형화됨을 확인하였으며, 각 잠재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 및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결론

논문접수일: 2026.06.18.

논문수정일: 2026.07.16.

게재확정일: 2026.08.01.

주제어: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잠재계층, 지각된 또래지지, 무대응 전략

I. 서론

최근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함께 스마트기기와 SNS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감소한 반면,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이후의 적절한 대처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25).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반복·확산될 수 있으며, 피해를 즉각적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3088726).

** 제1저자, 경기대학교 조교수 / hyhwang@kyonggi.ac.kr

*** 교신저자, 대경대학교 조교수 / annalee@tk.ac.kr

****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 ykhan@ewha.ac.kr

으로 차단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구별된다(고가영, 유효은, 2025). 이러한 특성은 피해 경험의 반복과 장기화를 초래하여 우울, 불안, 학교생활 부적응 및 대인관계 위축과 같은 사회·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두경희, 2013).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¹⁾. 특히 중학생 시기는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발달 단계로 사이버폭력 경험은 또래 관계의 위축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폭력의 영향은 피해 경험 자체보다 피해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대처행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실제로 도움요청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피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회피나 무대응과 같은 소극적 대응은 피해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유형, 발생 요인을 규명하며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김경은, 최은희, 2017; 성동규, 김도희, 이운석, 임성원, 2006; 송승연, 이창배, 2020; 신동준, 이명진, 2006; 이고은, 정세훈, 2014;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장원경, 2022). 이러한 연구들은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피해 이후 나타나는 대처행동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처행동을 잠재계층으로 구분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고가영, 유효은, 2025), 폭력 유형에 따라 피해학생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과 대처방식, 피해 이후의 조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Nissim, 2019)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 피해 이후 나타나는 대처행동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피해자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의 대처행동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래, 가정, 학교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피해 이후 도움요청과 적응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며(임재연, 2024; 노언경, 2023), 부모와 학교의 디지털 보호환경 또한 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인식과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hen et al., 1981; Nutter, 2021; 노희주, 조운오, 2025). 그러나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인이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나타나는 대처유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중학생은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큰 발달 단계라는 점에서 피해 이후의 대처행동을 유형별로 이해하고 관련 요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현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참고하되, 실제 통계분석에는 연구 수행 당시 공개되어 이용할 수 있었던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개인 수준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이후 나타나는 대처행동의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각 계층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또래지지와 가정 및 학교의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이 대처유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 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생의 대처유형은 어떠한 잠재계층으로 구분되며, 각 잠재계층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생의 대처유형 잠재계층 분류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배경

1.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특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유포 및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메신저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스토킹, 성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장원경, 2022).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이버폭력은 심리적·사회적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Nixon, 2014). 특히 사이버폭력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학교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억제 효과를 낮추며, 정보의 빠른 전달과 광범위한 확산성으로 인해 피해가 단시간 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명확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괴롭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오인수, 2011). 이러한 온라인 환경의 특성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오프라인 학교폭력보다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홍솔지, 최윤경, 2017).

특히 온라인 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공격행동을 보다 쉽게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Kowalski, Limber, & Agatston, 2008; Antoniadou & Kokkinos, 2015; Wang & Ngai, 2020).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해 내용은 단시간 내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오인수, 2011; Nixon, 2014).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회피하기 어렵고(Kowalski & Limber, 2007; Raskauskas & Stoltz, 2007), 교사나 부모 역시 피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Tokunaga, 2010). 이러한 특성은 피해의 반복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 이후 나타나는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해학생 경험 및 대처행동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대처행동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되며(Billings & Moos, 1981),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임재연(2025)은 스트레스와 대처의 거래적 모형(Lazarus & Folkman, 1984)을 바탕으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더라도 피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자원에 따라 대처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대처행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장윤옥(2013)은 이를 적극적 대처, 내면적 대처, 공격적 대처, 회피적 대처 및 지지추구적 대처로 유형화하였다.

학교폭력 및 또래괴롭힘 관련 연구에서도 피해학생의 대처행동은 적극적인 문제해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회피, 감정의 내면화, 공격적 대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정민, 2004; 나희정, 장윤옥, 2013). 특히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나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학생의 대처행동이 피해 경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처행동 역시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Nissim(2019)은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대처행동을 비교한 결과, 오프라인 피해학생은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학교에 신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피해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감소한 반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온라인상에서 보복 행동이 증가하고 학년이 낮을수록 무대응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피해학생의 대처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대응 특성을 세분화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피해학생의 대부분(92.3%)은 피해 사실을 가족, 교사 또는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5). 이는 피해 이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피해학생의 중요한 대응방식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학생의 대처행동은 도움요청

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피해 이후 나타나는 여러 대응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처행동을 유형화하여 이해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가영, 유효은(2025)은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처 양상에 관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대처유형은 단발소통형, 지속협력형, 단발회피형, 단발기술해결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집단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대처양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자의 대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처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분류와 관련된 개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3. 개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과 사이버폭력 대처행동

청소년의 행동과 적응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또래, 가정, 학교 등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요인은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 특성 가운데 성별은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온 요인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신나민, 안화실,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희주, 조운오, 2025). Li(2006)는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Orel et al. (2017)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도움요청 전략을 사용할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또래는 행동 형성과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또래지지는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적응과 회복을 지원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아영아, 박소현, 2020). 또한 또래지지는 사이버폭력 피해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실패공포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으며(유숙경, 박현선, 김진숙, 2020), 피해학생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대처방안 가운데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두정희, 2015). 특히 임재연(202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해 이후 함께 다니며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친구의 존재가 피해 극복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을 나눌 존재가 없는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노언경, 2023), 이는 또래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피해 이후의 적응과 대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또래와의 지지적 관계는 피해 이후 도움요청이나 문제해결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사회화 환경 중 하나로 청소년의 행동과 문제해결 방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회피적 대처행동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남순, 2005; 나희정, 장윤옥, 2013 재인용),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윤옥, 2013). 온라인 환경에서의 보호·감시는 범죄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으로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물리적 보호와 부모 및 학교의 감독과 같은 사회적 보호로 구분된다(Cohen et al., 1981; Nutter, 2021). 노희주, 조운오(2025)는 부모 감독을 인터넷 사용내역 확인, 부적절한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 지도, 개인정보 보호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시간 설정 등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해 수행하는 다양한 관여 행동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부모의 디지털 기기 이용 지도와 온라인 활동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esch, 2009; 김봉섭, 2022), 이는 부모의 디지털 이용 지도와 보호환경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온라인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피해 발생 시 도움요청이나 문제해결 등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Elsaesser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규칙을 정하는 등 협력적 방식으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lfrich et al.(2020) 역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대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교사·상담자·의료인 등의 전문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청소년의 행동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환경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존중, 학교 소속감, 명확한 규칙 등은 학생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ernkovich & Giordano, 1992; Resnick et al., 1993).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학교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사이버폭력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Williams & Guerra, 2007), 학교 내 인터넷 이용 규칙 역시 사이버폭력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esch, 2009). 김봉섭(2022)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정보통신기기 이용 규칙 등 학교의 디지털 안전 관련 활동이 사이버폭력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희주, 조운오(2025)는 사이버폭력 관련 규칙, 수업 중 스마트폰 이용 제한, 교사의 예방교육, 상담제도 마련 등 학교 차원의 감독 및 지원 활동과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교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조성하는 예방적 환경과 지원체계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뿐 아니라 피해 이후의 대응과 적응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

버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정책 개발 및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에 이용 가능한 개인 수준 원자료 가운데, 피해 대처행동과 온라인 또래지지, 가정 및 학교의 디지털 환경 등 연구에 필요한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2023년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청소년 표본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층화 2단 집락 추출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대상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 방문 집단 면접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중학생 3,020명 중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 1,22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을 특성별로 분류하면 성별로는 남학생은 683명(55.7%), 여학생은 544명(44.3%)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은 431명(35.1%), 2학년 443명(36.1%), 3학년은 353명(28.8%)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456명(37.2%), 중소도시 565명(46.0%), 읍면지역 206명(16.8%)이었다.

2. 측정도구

1)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하위지표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사이버폭력 8개 유형별(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피해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피해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해(문항: [사이버폭력 유형]에 응답한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며 당한)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하였나요?), 설문에서 제시한 6개의 대처유형에 대해 예(1)와 아니오(0)로 응답하게 하였다. 모든 문항에는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다.

사이버폭력 대처유형 지표변수에는 1)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 2)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했다 3)가족,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했다 4)해당 웹사이트나 상담센터 또는 경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신고했다 5)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6)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가 포함되었다. 각 문항별 응답비율은 <표 1>과 같다.

2) 관련 요인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대처유형 잠재집단 분류와 관련되는 공변인을 크게 개인수준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수준 요인에는 성별, 학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은 최근 1년간 실제로 교육을 받은 경험을 응답한 개인별 교육이력에 해당하므로 개인수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성별은 여학생은 0, 남학생은 1로 코딩하였다.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각각 1, 2, 3으로 코딩하였다. 3학년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1학년과 3학년을 비교하는 더미변수와 2학년과 3학년을 비교하는 더미변수를 각각 생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는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예방이나 대응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는 0으로, ‘예’는 1로 이분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 지각된 디지털 안전 학교풍토, 지각된 가정 디지털 보호환경을 포함하였다.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는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친구들의 반응에 대한 3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은 내가 힘들어할 때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등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2$ 로 나타났다. 지각된 디지털 안전 학교풍토와 지각된 가정 디지털 보호환경은 각각 ‘우리 학교와 선생님들’ 또는 ‘나의 부모님’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해당 문항은 여러 개의 보기를 제시한 뒤, 응답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된 가정의 디지털 보호환경과 관련하여 제공된 4개의 보기에는 ‘나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앱에 대해 알려 준 적이 있다’,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안전 학교풍토와 관련된 5개의 보기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평소에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우리 학교는 상담 등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하여 변인 점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학교의 디지털 안전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가정의 디지털 보호환경 역시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유형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각 응답자의 문항반응확률에 기반하여 문항별로 유사한 응답·행동패턴을 공유하는 이질적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관측된 문항반응유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이러한 잠재집단 간 차이로 설명하는 방법이다(Muthén & Muthén, 2019). 최적의 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값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분류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엔트로피(Entropy)값을 활용하였다(Muthén & Muthén, 2019). AIC, BIC 및 saBIC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엔트로피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도출된 잠재계층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adjusted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Lo, Mendell, &

Rubin, 2001).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에 대한 실질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 대비 집단별 사례수의 최소비율을 적용하였는데, Jung & Wickrama(2008)에 따라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본 수의 1% 내외를 포함한 집단의 경우, 전체 표본 수 대비 지나치게 작아 질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이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유형 잠재계층 소속에 미치는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Mplus 8.8의 R3STEP 절차를 활용하였다. R3STEP 절차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된 계층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인이 특정 계층에 속할 확률의 분류오차를 보정하여 잠재계층 소속과 공변량 간의 조건부 관련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Vermunt, 2010). 분석결과는 회귀계수와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승산(odds)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누어 구하는 값으로, 승산비가 1보다 큰 경우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포함할 확률이 (승산비-1)*100%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SPSS 26.0과 Mplus 8.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었다.

먼저 범주형으로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빈도분석)를 살펴보면(<표 1> 참고), 전체 1,227명의 응답자 중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후 대처한 행동에 대해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에 응답한 비율이 545명(44.4%),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가 396명(32.3%),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했다’가 303명(24.6%)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해당 웹사이트나 상담센터 또는 경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신고했다’는 54명(4.4%),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는 75명(6.1%)으로 응답률 10%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관련요인으로 투입한 개인수준 요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인별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예방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117명(91.0%),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10명(9.0%)으로 나타났다. 연속형 변인으로 측정된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의 평균은 2.99, 표준편차는 .70였으며, 지각된 디지털 안전 학교풍토의 평균은 3.05, 표준편차는 1.45였고, 지각된 가정 디지털 보호환경의 평균은 1.22점, 표준편차는 1.07로 확인되었다.

〈표 1〉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유형 지표변수의 응답 비율

구분	변수	예(%)	아니오(%)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유형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했다	545(44.4%)	682(55.6%)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했다	303(24.6%)	925(75.4%)
	가족, 친구, 선후배, 선생님 등 주변에 알려거나 도움을 요청했다	144(11.7%)	1083(88.3%)
	해당 웹사이트나 상담센터 또는 경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신고했다	54(4.4%)	1173(95.6%)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75(6.1%)	1152(93.9%)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	396(32.3%)	831(67.7%)

2.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잠재계층

1)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잠재계층 수

중학생들의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층모형을 2개부터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최적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표 2> 참고). 첫째, 잠재계층 수가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 AIC, BIC, saBIC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IC와 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4개로 증가할 때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이후로는 기울기가 갈수록 완만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둘째, 잠재계층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의 값은 3계층 이상 모형에서는 엔트로피 값이 모두 .85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5계층 모형의 엔트로피가 .968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셋째, adjusted LMR-LRT와 BLRT 유의도 검증 결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계층의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5개까지는 표본크기 대비 잠재계층의 최소 비율이 5%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계층 모형에서는 전체 표본의 1.5%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계층이 나타났고, 7계층 모형에서도 1.5%와 2.5%의 소규모 계층이 나타났다.

정보적합도 지수와 우도비 검정만으로는 명확한 최적 계층 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6계층과 7계층 모형에서는 1~2% 수준의 매우 작은 계층이 나타났다. 소규모 계층은 표본의 일부 특성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계층의 안정성과 실질적 해석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반면 5계층 모형은 가장 작은 계층도 전체 표본의 약 5% 이상을 차지하였고, 각 계층이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면서 서로 구분되는 대처행동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6계층과 7계층 모형에서 새롭게 분리된 일부 계층은 기존 계층과 문항반응 양상이 유사하여, 새로운 대처유형이라기보다 기존 계층이 소규모로 세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적 적합도, 엔트로피, 계층별 사례수, 해석 가능성, 모형의 간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계층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집단수	AIC	BIC	saBIC	Entropy	adjusted LMR-LRT	BLRT	잠재계층 분류율(%)						
							1	2	3	4	5	6	7
2개	5398.209	5464.669	5423.376	1.000	0.01	0.00	32.3	67.7					
3개	5190.770	5293.016	5229.488	0.851	0.00	0.00	32.3	40.0	27.7				
4개	5092.738	5230.771	5145.008	0.887	0.00	0.00	13.7	22.3	31.7	32.3			
5개	4999.120	5172.940	5064.941	0.968	0.02	0.00	31.7	11.7	32.3	18.3	5.9		
6개	4949.473	5159.079	5028.845	0.963	0.00	0.00	1.5	32.3	32.5	22.6	5.7	5.5	
7개	4902.49	5147.882	4995.413	0.961	0.00	0.00	5.1	2.5	1.5	22.6	4.3	31.7	32.3

2)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잠재계층 유형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적합도 수준에 의해 도출된 5개의 계층을 ‘차단/회피형’, ‘복합적 도움요청형’, ‘무대응형’, ‘직접 요구형’, ‘보복/신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1은 전체 표본의 31.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집단으로, 차단 또는 ID·이메일 삭제·변경과 같은 기술적 대응에 대한 문항반응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과 또는 삭제를 직접 요구하는 행동의 확률은 0.040으로 부분적으로 동반되었으나, 다른 대처행동은 매우 낮았다. 이 집단은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차단이나 계정 변경을 통해 신속히 관계를 단절하는 회피·차단 중심의 대응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잠재계층 1은 ‘차단/회피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2는 ‘복합적 도움요청형’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표본의 11.7%를 차지하였다. 이 집단은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의 문항반응확률이 1.000으로 나타났다. 차단 또는 계정 변경도 .465, 가해자에게 사과나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도 .424로 비교적 높았다. 공식기관 신고의 응답확률은 .139, 보복·괴롭힘은 .056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주변 사람에 대한 도움요청이 핵심이고, 기술적 차단 및 직접적 문제 제기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결합되며, 공식기관 신고는 일부 동반되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복합적·적극적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잠재계층 3은 전체 표본의 3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해당 집단은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반응의 문항반응확률이 1.000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처 유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이후 어떠한 적극적·소극적 대응 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기에, ‘무대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4는 전체 표본의 18.3%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피해 이후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삭제나 사과를 요구하는 행동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차단 또는 ID·이메일 삭제·변경 행위도 문항반응확률 .357로 일부 동반되었다. 즉, 가해자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기술적 차단이나 계정 변경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직접 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5는 전체 표본의 5.9%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보복과 공식적 신고의 응답확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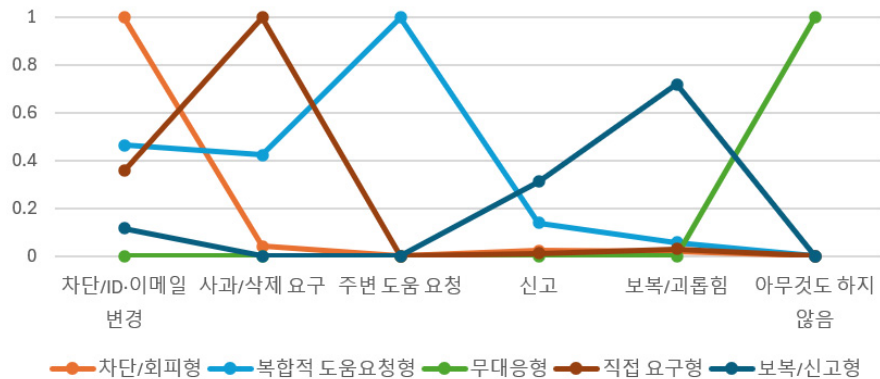
함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보복/신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서는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의 문항반응확률이 0.719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공격적·가해적 대응이 이 집단을 가장 뚜렷하게 특징짓는 핵심 반응양식임을 보여준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나 상담센터 또는 경찰(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 확률도 .312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최빈 사후확률을 기준으로 각 연구대상을 하나의 잠재계층에 분류한 후, 집단별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의 응답 빈도와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또한 잠재계층별 문항반응확률을 바탕으로 각 잠재계층의 특성을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표 3〉 최빈 잠재계층별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응답 빈도 및 집단 내 비율

구분	차단/회피형 (n=389)	복합적 도움요청형 (n=144)	무대응형 (n=396)	직접 요구형 (n=241)	보복/신고형 (n=66)
	N(%)	N(%)	N(%)	N(%)	N(%)
차단/ID·이메일변경	389(100.0)	67(46.5)	0(0.0)	80(33.2)	8(12.1)
사과/삭제요구	16(4.2)	61(42.4)	0(0.0)	225(93.4)	0(0.0)
주변도움요청	0(0.0)	144(100.0)	0(0.0)	0(0.0)	0(0.0)
신고	9(2.4)	20(13.9)	0(0.0)	3(1.2)	22(33.3)
보복/괴롭힘	8(2.1)	8(5.6)	0(0.0)	7(2.9)	52(78.8)
아무것도 하지 않음	0(0.0)	0(0.0)	396(100.0)	0(0.0)	0(0.0)

주: 집단별 사례수는 최빈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값이며, 백분율은 최빈 잠재계층별 전체 사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집단 내 비율이다. 대처행동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각 행과 열의 백분율 합은 100%가 되지 않는다.



[그림 1]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에 따른 잠재계층

3.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 잠재계층 관련요인 분석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의 잠재계층 소속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R3STEP 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무대응형’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른 유형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R3STEP 분석 결과, 무대응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차단/회피형에 속할 가능성에는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즉,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무대응형에 비해 차단/회피형에 속할 승산은 28.2% 증가하였다($b=.248$, $OR=1.282$, $p<.05$). 둘째, 복합적 도움요청형의 경우 성별,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 지각된 가정 디지털 보호환경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일수록 무대응형에 비해 복합적 도움요청형에 속할 승산은 64.5% 낮았으며($b=-1.034$, $OR=.355$, $p<.001$),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복합적 도움요청형에 속할 승산은 52.9% 증가하였다($b=.425$, $OR=1.529$, $p<.01$). 또한 지각된 가정 디지털 보호환경이 1단위 증가할수록 복합적 도움요청형에 속할 승산은 27.7% 증가하였다($b=.245$, $OR=1.277$, $p<.05$). 셋째, 직접 요구형에서는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가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가 1단위 증가할수록 무대응형에 비해 직접 요구형에 속할 승산은 50.0% 증가하였다($b=.405$, $OR=1.500$, $p<.01$). 마지막으로 보복/신고형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일수록 무대응형에 비해 보복/신고형에 속할 승산은 91.3% 증가하였다($b=.649$, $OR=1.913$, $p<.05$).

학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 지각된 디지털 안전 학교풍토는 무대응형과 다른 대처유형을 구분하는 데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표 4〉 무대응형 대비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유형 잠재계층 소속 예측요인

구분		준거집단: 무대응형							
		vs 차단/회피형		vs 복합적 도움요청형		vs 직접 요구형		vs 보복/신고형	
		b(S.E)	OR	b(S.E)	OR	b(S.E)	OR	b(S.E)	OR
성별		-.007 (.160)	.993	-1.034*** (.225)	.355	-.317 (.183)	.728	.649* (.328)	1.913
학년	1학년	.146 (.191)	1.157	.012 (.261)	1.013	.343 (.215)	1.409	.108 (.332)	1.104
	2학년	.097 (.181)	1.102	-.003 (.253)	.997	-.006 (.212)	.994	-.430 (.338)	.651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		.333 (.270)	1.395	-.076 (.368)	.927	.544 (.338)	1.719	-.447 (.337)	.639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		.248* (.112)	1.282	.425** (.162)	1.529	.405** (.132)	1.500	-.035 (.220)	.965
지각된 디지털 안전 학교풍토		.043 (.053)	1.044	.036 (.076)	1.037	.030 (.063)	1.030	-.121 (.106)	.885
지각된 가정 디지털 보호환경		.046 (.070)	1.047	.245* (.098)	1.277	.151 (.081)	1.163	.132 (.131)	1.141

* $\alpha<.05$, ** $\alpha<.01$, *** $\alpha<.001$; OR=odds ratio

주: 남학생=1, 여학생=0으로 코딩하였음. 학년은 3학년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는 경험 있음=1, 없음=0으로 코딩하였음.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과 관련된 개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피해 대처를 적극적·소극적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여러 행동전략의 조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처유형에 따라 관련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행동이 ‘차단/회피형’, ‘복합적 도움요청형’, ‘무대응형’, ‘직접 요구형’, ‘보복/신고형’의 다섯 가지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행동전략이 복합적으로 조합되는 다차원적 특성을 지님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무대응형이었다. 이는 고가영, 유효은(2025)의 연구에서 나타난 단발회피형의 비율과도 유사하다. 특히 중학생은 자기조절능력과 자기주도적 의사결정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피해 상황에서 다양한 대처방안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김민성, 신태수, 2010),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일부 학생들이 피해 상황에서 대응을 유보하거나 무대응을 선택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반복성과 확산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므로(Kowalski et al., 2008),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인식할 경우 통제감과 대처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 두경희(2015) 역시 일부 피해자들이 대응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피해를 감내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피해의 유형과 심각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무대응형에는 통제감 상실로 대응을 포기한 학생뿐 아니라 피해가 경미하거나 일회적이라고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우려하여 무대응하는 학생들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대응형은 단일한 심리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기보다 다양한 피해 경험과 대처 동기가 포함된 집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무대응을 선택한 이유와 사건의 맥락을 함께 측정하여 전략적 비대응과 대응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무대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대응형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차단/회피형은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변경하는 기술적 대응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상대방과의 접촉을 비교적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이나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단 이후 증거 보존이나 신고와 같은 후속 대응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직접 요구형은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피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자기주장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온라인

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재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복합적 도움요청형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의 응답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차단과 직접 요구도 상대적으로 함께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대응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응적인 대처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문경, 2015; Arató et al., 2021; Kaiser et al., 2020). 두경희(2015)의 연구에서도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한 대처행동으로 사회적 지지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도움의 원천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복합적 도움요청형 집단의 특성은 사회적 지지가 피해자의 행동적 대응과 관련된 핵심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보복/신고형은 보복·괴롭힘과 공식기관 신고의 응답확률이 함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복합적인 대처 조합이었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공격적 대응과 제도적 대응이 한 계층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형성 기제를 본 연구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사이버폭력 피해가 또래관계의 손상이나 체면의 위협으로 지각될 경우 분노와 좌절감이 보복적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정규형, 송도훈, 박선희, 박형주, 2025), 일부 청소년은 동일한 피해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과 공식적 신고를 함께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와 피해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교차할 수 있다는 점(김신아, 방은혜, 한운선, 2017)도 이러한 대처 조합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다만 복수응답 자료만으로는 보복과 신고가 동일 사건에서 함께 나타났는지, 서로 다른 사건에서 각각 선택되었는지, 어느 행동이 먼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가해·피해 중첩 여부를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심리적 동기나 가해 경험과 직접 연결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복/신고형은 두 행동의 조건부 응답확률이 함께 높은 계층이라는 기술적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하고, 후속 연구에서 그 형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 대처 잠재계층별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온라인 또래지지는 차단/회피형, 복합적 도움요청형, 직접 요구형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지지가 피해 학생이 무대응 상태에 머무르기보다 차단, 도움 요청, 직접 요구와 같은 다양한 행동적 대응을 선택하도록 하는 보호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충할 뿐 아니라 적응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사회적 지지 이론(Cohen & Wills, 1985)과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또래상담, 또래멘토링, 지지적 학급문화 조성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디지털 보호환경은 복합적 도움요청형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 온라인 위험, 사이버폭력 신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보호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정도가, 피해 청소년이 단순히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를 포함한 주요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를 선택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온라인 위험에 대한 정보, 증거 보존 및 신고 절차, 차단이나 도움 요청과 같은 구체적

대응 방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 요청, 차단, 직접 요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적 도움요청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정 디지털 보호환경은 피해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실질적 대응 지식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의 적응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증거 보존, 신고 절차, 도움 요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하는 디지털 보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무대응형과 비교할 때 복합적 도움요청형 및 보복/신고형에 속할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무대응형에 비해 복합적 도움요청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보복/신고형에 속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정서적 지지와 조언을 구하는 사회정서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된다(Li, 2006). 이는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도움 요청을 적게 하거나 보복적 대응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무대응형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나타난 계층 소속 가능성의 차이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서 성별에 따른 대처양상을 단정하기보다, 남학생이 피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데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공격적 대응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별에 기반한 획일적인 개입보다는 개별 학생의 대처행동과 도움 요청의 어려움, 정서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가 단일한 행동양식이 아니라 차단·회피, 복합적 도움요청, 무대응, 직접 요구, 보복·신고 등 서로 다른 행동전략의 조합으로 나타나며, 각 유형은 온라인 또래지지, 가정의 디지털 보호환경, 성별과 같은 관계적·환경적 요인과 서로 다르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를 대처행동의 이질성과 이를 둘러싼 관계적·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지닌다.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피해 학생에게 동일한 대처 지침을 제공하기보다 각 잠재계층의 대처행동과 관련 요인을 고려한 지원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무대응형 학생에게는 무대응의 이유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또래·교사·보호자에게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상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차단/회피형 학생에게는 기술적 차단을 일차적 보호수단으로 인정하되,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경우 증거 보존, 공식적 신고 및 주변 도움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복합적 도움요청형은 주변 도움요청을 중심으로 여러 대응을 사용하는 유형이므로 또래상담과 멘토링 등 관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직접 요구형 학생에게는 안전한 의사표현 방법을 안내하고, 온라인 또래지지와 가정의 디지털 보호환경을 활용하여 갈등의 재확산을 예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복/신고형 학생에게는 개별 사건의 맥락을 확인한 후 감정조절, 비공격적 갈등해결 및 공식적 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은

개입 효과를 직접 검증한 결과가 아니기에, 향후 예방교육과 상담 및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성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피해의 유형, 빈도, 지속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온라인·오프라인 피해의 중첩 여부 등 피해 경험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대처행동의 선택과 잠재계층 소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통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에, 잠재계층 간 차이를 개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 피해경험의 특성을 공변인으로 함께 투입하거나, 피해 특성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계층의 형성과 관련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도 출된 일부 잠재계층은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복/신고형은 두 행동의 조건부 응답확률이 함께 높은 계층을 의미할 뿐, 동일 사건에서의 동시 발생이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지 않는다. 추후 질적·종단적 접근을 통해 두 행동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맥락과 기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로 사이버폭력 피해 대처유형을 설명하는 관련요인들이 제한적으로 포함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사이버폭력 대응지식, 학교 적응,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기능, 또래관계의 질 등 다양한 개인적·맥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영향요인과 대처유형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연구결과는 잠재계층 소속과 공변량 간의 조건부 관련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변수 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분석 시점에 이용 가능한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개인 수준 원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시간적 제한이 있다. 자료 수집 이후 온라인 환경과 사이버폭력 양상, 학교·가정의 대응체계가 변화했을 수 있으므로, 잠재계층 구조와 비율을 현재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신 원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의 재현 가능성과 관련 요인의 변화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 대처유형에 속한 학생들이 왜 그러한 대처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포함한 혼합연구를 통해 각 유형의 심리적 동기와 맥락적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가영·유효은 (2025).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처방식 유형 및 영향요인 연구. **피해자학연구**, 33(2), 33-68.
- 교육부 (2025).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김정은·최은희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8, 75-97.
- 김민성·신태수 (2010).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자기결정성 학습노력 학업성취 학교 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3), 43-70.
- 김봉섭 (2022). 부모통제·학교관여·교우관계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1(1), 121-162.
- 김신아·방은혜·한운선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국내연구 메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8-33.
- 김정민 (2004). 또래집단괴롭힘 상황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대처전략 유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793-807.
- 나희정·장운옥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1), 137-153.
- 노언경 (2023). 현실세계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형화: 학교급별 다집단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적용. **교육문화연구**, 29(1), 309-333.
- 노희주·조윤오 (2025).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생활양식-일상활동 이론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19(1), 63-94.
- 두경희 (2013).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두경희 (2015).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 및 대처행동. **청소년학연구**, 22(11), 81-10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202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 79-129.
- 송승연·이창배 (2020).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115-136.
- 신나민·안화실 (2013). 청소년 사이버 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4), 1-21.
- 신동준·이명진 (2006).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0(1), 149-195.
- 아영아·박소현 (2020).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방어적 또래지지에 의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6(3), 89-116.
- 오인수 (2011). 초등학교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75-98.
- 유남순 (2005). 가족환경에 따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전략과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 유숙경·박현선·김진숙 (2020).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실패공포에 미치는 영향: 용서와 또래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2), 1241-1256.

- 이고은 · 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2), 129-162.
- 이승현 · 강지현 ·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임재연 (2024). 학교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교육과 문화**, 6(1), 45-71.
- 임재연 (2025).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피해학생의 정서, 대처 및 조치 경험의 차이: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1(6), 835-857.
- 장원경 (2022).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저스티스**, 189, 461-491.
- 장윤옥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1(1), 231-260.
- 정규형 · 송도훈 · 박선희 · 박형주 (2025).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6(4), 170-178.
- 정문경 (2015).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195-211.
- 홍솔지 · 최윤경 (2017).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1(2), 39-60.
- Antoniadou, N., & Kokkinos, C. M. (2015). Cyber and school bullying: Same or different phenomena?.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5, 363-372.
- Arató, N., Zsidó, A. N., Rivnyák, A., Péley, B., & Lábadi, B. (202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cyberbullying: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ullying Prevention*, 4(2), 160-173.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illings, A. G., &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2), 139-15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ernkovich, S. A., & Giordano, P. C.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2), 261-291.
- Cohen, L. E., Kluegel, J. R., & Land, K. I.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Elsaesser, C., Russell, B., Ohannessian, C. M., & Patton, D. (2017). Parenting in a digital age: A review of parents' role in preventing adolescent cyberbully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5*, 62-72.
- Helfrich, E. L., Doty, J. L., Su, Y.-W., Yourell, J. L., & Gabrielli, J. (2020). Parental views on preventing and minimizing negative effects of cyber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8*, 105377.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377>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 Kaiser, S., Kyrrestad, H., & Fossum, S. (2020). Help-seeking behavior in Norwegian adolescents: The role of bullying an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in a cross-sectional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Psychology, 8*, 81-90.
- Kowalski, R., & Limber, S. (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22-30.
- Kowalski, R., Limber, S., & Agatston, P. (2008). *Cyber-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Blackwell Publishing.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 Q. (2006). Cyberbullying in schools: A research of gender differenc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2), 157-170.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esch, G.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4), 387-393.
- Muthén, B., & Muthén, L. (2019). *Mplus: A general latent variable modeling program*. Muthén & Muthén.
- Nissim, M. B. (2019). Cyberbullying vs. traditional bullying - Do victims react differently? [Conference paper]. ResearchGate. May 2019.
- Nixon, C. L. (2014). Current perspective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on adolescent health. *Adolescent Health, Medicine and Therapeutics, 5*, 143-158.
- Nutter, K. J. (2021). Examining cyberstalking victimization using routine activities and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ies: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The Mid-Souther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 1.
- Orel, A., Campbell, M., Wozencroft, K., Leong, E., & Kimpton, M. (2017). Exploring university students' coping strategy intentions for cyberbully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3), 446-462.
- Raskauskas, J., & Stoltz, A. D.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64-575.
- Resnick, H. S., Kilpatrick, D. G., Dansky, B. S., Saunders, B. E., & Best, C. L. (1993). Prevalence of

- civilia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984-991.
- Tokunaga, R. S. (2010). Following you home from school: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3), 277-287.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ang, L., & Ngai, S. S. Y. (2020). The effects of anonymity, invisibility, asynchrony, and moral disengagement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school-aged children in Chin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9, 105613.
- Williams, K. R., & Guerra, N. G.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14-21.

Abstract

Latent Classes of Cyberbullying Victim Coping Behaviors and Their Correlat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Hwang, Hyeyoung¹ · Lee, Anna² · Han, You-Kyung³

¹*Assistant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aekyeung University*

³*Director,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classes of adolescents' coping behaviors following experience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to examine the individual and social-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membership in each latent class. Using data from the 2023 Cyberbullying Survey, a total of 1,227 middle school students who reported experiencing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t least once were included in the study.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the R3STEP procedure in Mplus were conducted for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ive distinct latent classes of coping with cyberbullying victimization were identified: blocking/avoidance, combined help-seeking, non-response, direct request, and retaliation/reporting. Second, perceived online peer support was a common factor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blocking/avoidance, combined help-seeking, and direct request classes, compared with the non-response class. In addition, 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han female students to belong to the combined help-seeking class than to the non-response class, whereas they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retaliation/reporting clas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dolescents' coping behaviors following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an be classified into distinct latent classes.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tailored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tent class.

Key Words: Cyberbullying, Coping behaviors following cyberbullying victimization, Latent class, Perceived online peer support, Non-response strategy